

○ 녹 음 일 시 : 2024년 05월 08일

○ 녹 음 장 소 : 전화통화

○ 대 화 자 : 박준한 / 최병선

대 화 내 용 (5)

파일명 : 2024. 5. 8. 통화녹음

박준한 : 형님,

최병선 : 응.

박준한 : 아, 이거 답변 좀 주세요. 제가 지금 중간에서 완전 난처하게 됐어요.

최병선 : 아니 이게 내가 대한상인은 하여튼 정리하고,

박준한 : 예,

최병선 : (...),

박준한 : 여보세요? 예, 예.

최병선 : 양 전무 하는 쪽으로 하고 내가 지금 다른 일 좀 하나 보고 있거든. 그게

증제 5호증 5



아마 다음 달부터는 거기서 좀 나올 거야, 돈이. 이게 이거랑 상관없는, 유통이랑 상관없는 일인데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. 그래서 일부 만들 거라고 해서, 거기서 내가 뭐, 그러니까 저절로 주면 돼. 내가 개인적으로 빼서 줄 테니까 매달 1,000 정도? 다음 달부터는,

박준한 : 지금, 아니, 그러니까 형, 사실은 이제 매달 저번에 300 이야기를 하니깐, 사실 그래서 난리가, 형이 그때 그랬잖아요?

최병선 : 300을 준다고 그랬어?

박준한 : 예. 그러니까 나는 그거 그냥 그대로 전했다가 완전 개 뒤집어졌어, 형. 진짜 빵 아니고. 무슨 1억 3,000을 한 달에 300씩 하면 4년 동안 누가 이거를 하나. 그냥 만기 딱 다가와서는 바로 그냥 안 들어오니까. 그거 저거 진행했죠, 집에서 완전 열 받아서. 난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. 근데 이제 폐문부재 떠버리니까 “돈 안 갚으려고 이러네.” 그러니까 “소송 들어가겠다.” 지금 생난리 나가지고 아침에도 무슨 뭐 소송한다고 지금, 저 변호사 통화하고 있길래 내가 좀 기다려보라고 해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전화한 거거든, 아침에?

최병선 : 내가 다른 쪽으로 저거 하고 있어. 다른 일. 다음 달부터 내가 돈, 지금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. 계획상으로 뭐, 한 달에 3-4천은 내가 나오게 해놨으니까.

박준한 : 형 앞으로요?



최병선 : 어, 현금으로. 내가 현금으로 받아, 현금으로.

박준한 : 그러면,

최병선 : 받아서 거기서 내가 너한테 현금으로 매달 전해주든가 이래야지.

박준한 : “그거는 얼마씩 저한테 주겠다.” 뭐 이야기를 하고서 저기다 이야기를, 그러니까 이거예요. “300? 어이없네.” 근데 3월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. “봐라.” 4월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. “봐라.” 내용증명 보내고 폐문부재 나오고 뭐 가압류 뜨니까, 나야 이제 들은 얘기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장 안 되잖아, 사실 이 말은. 막말로 양동균 회사에서 뭘 한다고 했는데 아무 리스폰스도 없고 하니까. 아침부터 형, 진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와- 최악이야, 최악. 진짜로. 변호사 통화하고 있더라니까, 아침에 사무실에.

최병선 : 내가 고소한 거 1년 되도록 지금,

박준한 : 예?

최병선 : 조사도 안 받았어, 남혜정이는. 어제 지랄하고 (...) 거기 연락해가지고 씨발. 하긴 거기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수서경찰서에 전화한다는데. 내가 매일 한 다, 나도 그래서. 그 변호사 새끼 변호사지만 개한테. 수임료 뭐 씨, 수임료도 3,000 받아 가놓고 착수금이 씨, (...),

박준한 : 그러면 다음 달부터면 언제부터예요? 정확히.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, 여기서는 진짜 이번 주 내로 아무 뭐 없으면 바로 그냥 뭐 민사 진행하겠



다는 거예요, 솔직히 말하면.

최병선 : 그거 뭐 법인 해도 의미 없어. 내가 대한상인 지금 없앨 거야. 의미 없어.

박준한 : 아니, 어차피 형 연대보증이 돼 있단 말이에요, 형도.

최병선 : 아니,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. 그래서 내가 있는데 지금 안 주고 있는 게 아니고. 지금 구조 만드느라고 약간 그레이 쪽, 2차 PG 가상계좌 이쪽 지금, 코인 지금 하고 있으니까. 매달 내 앞으로 그냥 내가 리셀 (...) 해서 받는 걸로 해놨거든.

박준한 : 그러면,

최병선 : 이제 하면 입금 금액이 얼마인지 봐야지, 뭐. 그거 지금 통화하고 있었어. 한 두 달되면,

박준한 : 그러면 “한 달에 얼마 정도씩 이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.” 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, 형? 진짜로.

최병선 : 말일 날 1,000씩 줄게, 말일 날.

박준한 : 말일 날 조금씩요?

최병선 : 일단 그렇게 해놓고 1,000만 원 씩 해놓고. 이게 목돈이 한번, 이것도 한 두세 달 하면 목돈이, 씨드가 쌓이거든. 거기서 내가 먼저 빼서 주든가 (...).

박준한 : 아- 형, 1,000만 원 해서 1년 기다리라면 나는 이 말 못 해요. 또 싸움 나



요, 진짜. 아침 내내 소리 지르고,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욕만 처먹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, 지금.

최병선 : (...) 씨드가 생기면 내가 목돈을 먼저 쓸 수가 있다고. 그 무슨, 우리가 디파짓(deposit)은 받으니까,

박준한 : 아- 이 말을 또 난 또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?

최병선 : 어떻게 하냐, 씨발 (...) 나도 이게 소송에서, 내가 이거 받아서 줄려면 “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겠다, 말일에.” 해야지, 당장은.

박준한 : 아- 나는 진짜 이 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, 형. 솔직히 말하면.

최병선 : 그렇다, 상황이. 갚을 의지가 있고 갚겠다. 일단 1,000만 원씩이고 나도 목돈 나오면 빼서, 나도 뭐 시달리는 거 싫으니까. 알았어, 어떻게 양해를 좀 구해 봐.

박준한 : 이거 기간 정해놓고 뭐를 하든지. 아니, 형, 양해를 구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, 이거는? 이거는 그냥 딱 “원하는 대답 안 나오면 그냥 소송가겠다.” 예요, 여기서는.

최병선 : 원하는 게 뭐야, 그럼 어떻게 해야 해?

박준한 : 아니, 갚을 거냐 말, 형, 리스폰스가 내내 없었잖아요. “해 준다, 해 준다” 해놓고서,



최병선 : 일이 없으니까, 지금 내가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못 갚았지. 다른 일을,

박준한 :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, 형, 중간에 나는 껴서 뭘 말을 어떻게 전해요, 이거
를? 그러니까 나도 환장하죠, 이게.

최병선 : 아니,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과정 관리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, 확실한 게
나도 지금 없으니까. 어제부터, 어제까지 두 달? 나도 일 만든 거야. 뭐 이
찾듯이 따라다니고 뭐,

박준한 : 아니, 그러면 양동군 회사에서도 돈이 나온다면요?

최병선 : 거기는, 거기 월급도 딱 월급 주고 세금 내면, 그러니까 우리는 매출이 떨어
졌잖아, 그게 어쩔 수 없어. 그것도 지금 내가 동군이한테 해서 내일 뭐
전자담배 인터파크에 공급하는 거 벤더 계약해놓고 내일 내가 만나기로 했
어, 인터파크 상무랑 동군이랑. 해서 이익 만들어두고, 거기서도 이익 나오
면 거기서라도 빼주지. 그쪽이랑 나랑 하면 한 달에 2,000이든 뭐, 빼주면
되지. 나도 매달 주는 게 그걸 기본으로 하고, 목돈 내가 빠지면 줄게. 목
돈으로. 소송해서 받는 거는 뭐 요원한 얘기인 것 같고, 내 입장에서.

박준한 : 아니, 우리 쪽에서 형을 민사로 하겠다고 저쪽이 저 난리 나고 아침에 대
판 싸웠다니깐요, 진짜. 아휴, 나 머리 아파 죽겠네. (한숨)

최병선 : 나도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지, 뭐. 1,000이든 2,000이든 일단 1,000은 내
가 매달 말일 날,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거에서 내가 빼주고. 그다음에 목
돈 생기면 주고. 내가 좀 확답을 못 주겠어. 일은 어쨌든 두 개는 돌아가게



해놔는데 이제 얼마가 돈이 꽃히느냐의 문제지, 뭐. 목돈 들어오면 목돈으로 내가 먼저 빼줄 테니까.

박준한 : 최소 1,000만 원 이상 보장은 되는 거예요, 그럼?

최병선 : 그래, 어. 내가 지금 당장 돈 나갈 게 없어. 나도 지금 최소한 지출로 지금 해놔서, 나오면 그걸로 ‘빚같이’ 해야지, 나도 뭐.

박준한 : 나는 마누라, 뭘 이야기하지? 아휴, 나 떨려, 떨려, 지금. 형, 나 지금 카드 뺏겼어요.

최병선 : 난 마누라가 돈 달라고 난리데, 지금, 서비스 받아서 쓰라 그랬어.

박준한 : 아..., 일단은 저도, 아...,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돼?

최병선 : 그 일을 한 나도 두세 달 동안 만들었어.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다른 쪽으로 해서, 내가 지금 남의 거 막, 지금 더 이상 돈 받기도 그렇고. 하여튼 내가 저 애들 그거 시키는 거 해서 내가 가져오라고 얘기해놔었니까.

박준한 : 일단은, 아- 나,

최병선 : 근데 뭐 한 방에도 빼주고. 근데 그거를 한, 내가 볼 때 한 두세 달은 걸려, 이게. 일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.

박준한 : 그럼 보세요, 형님. 4월 달이란 말이에요. 4월이 만기였잖아요. 5월이고. 두세 달, 그럼 5, 6 일단은 또 “기다려라.” 잤아.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떻게,



최병선 : 과정 관리를 해줄게. 내가. 이젠 뭐 이제 매일 돈 들어오는 일이니까. 해놓으면,

박준한 : 그러니까 솔직히 GNK, 이거는 이제 내 돈이 아니니까 막말로 이야기를 해서, GNK에서는 “언제부터 어떻게 되냐?” 예요. 그러면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“6월 1일부터라도 해서 아니면 이달 말이라도 해서 일단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정리를 한다.” 말이 나오면 뭐 “계약서를 다시 쓰자.” “차용증을 다시 쓰자.” 말이라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형이 던지는 말이, 그냥 “나 지금 이래 이래 하고 있으니까 아- 나도 몰라.”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. 나는 그 일을 더 모르잖아, 형. 이거를 다시 또 거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우, 뒷골 당겨.

일단은 카톡으로라도 형,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, 그럼. 언제부터 어떻게라도 하겠다. 그러면 내가 이제 와이프한테라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. 뭐 레퍼런스가 뭐가 있어야지 저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, 진짜 이거는.

최병선 : 그러니까 뭐 일 내용을 굳이 설명할 건 없잖아. 내가 일정만 공유해 주면 되잖아? “언제, 어떤 식으로 상환하겠다.” 그렇게 해서 내가 정리해서 주면 되지? 스토리를,

박준한 : 그러니까 최소한 언제부터는 어떻게 입금이 따박 따박 된다. 뭐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.



최병선 :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6월 말이야, 내가 지금.

박준한 : (한숨)

최병선 : 이달 말은 모르겠다. 그거는 뭐, 괜히 얘기했다가 또 미스하면 안 되니까.
나는 이제 미니멈으로, 보수적으로 내가 적어서 보내줄게, 그럼.

박준한 : 일단 주세요. 나는 그거 갖고 내용을 전달만 할 뿐이에요. 지금 이거는 완전 칼자루 다 넘어갔어요. 형, 나는 개털 됐어요, 개털. 진짜로.

최병선 : 알겠어. 보내줄게, 카톡으로 해서.

박준한 : (한숨) 알겠습니다.

최병선 : 응.

박준한 : 예.

끝.

상 호	경청속기사무소	담당 속기사	임 승 주
사업자등록번호	194-26-00377	국가기술 자격번호	11-G2-000297
사업장소재지	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, 서릉빌딩 3층 경청속기		
종 목	녹취록 및 회의록 작성		



열람용

경청속기사무소

www.kac67.com

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, 서릉빌딩 3층 301호

TEL : 02) 2055-0402 / FAX : 050) 8098-0402 / E-Mail : kac67@naver.com